

# 예술과 일상 시간과 공간 마을과 세계 사이를 잇다



양림골목비엔날레 11월 10일까지  
비엔날레 본전시 등 50여 작가 참여  
'스폰워크'·'겉기좋은 양림' 등 진행



서여름 작 '사이, 시공간의 흔적'

조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올해 3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와 연계된 전시가 열리는 만큼 세계미술의 흐름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먼저 'Connecting Way part1. : 사이, 시공간의 흔적'은 양림동 골목과 비어있는 공간에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시이다. 3권역 10개소에서 진행된다. A권역 1912 한옥, 이상우가옥, 사잇길이며 B권역은 10년후그라운드, 조아라기념관, 사잇길이다. C권역은 차고갤러리, 호랑가시나무언덕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한 양림동에서 2021년 처음 열린 '양림골목비엔날레'. 예술가를 비롯해 문화기획자, 주민, 상인이 함께 마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마을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은 골목비엔날레 정체성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축제로 평가받는다.

올해도 양림골목비엔날레(집행위원장 한희원)가 양림동 일대에서 펼쳐진다.

4일 10년후그라운드에서 개막한 골목비엔날레는 동네 주민은 물론 예술가들이 함께 마을의 가치와 매력을 알리는 대장정에 돌입했다. 오는 11월 10일까지 68일간 펼쳐지는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골목마다 자리한 개성적인 갤러리와 카페 등 일대 공간이 미술관으로 변신한다. 주제는 'Connecting Way : 사이, 사이를 잇다'. 예술과 일상, 시간

과 공간, 마을과 세계와의 연결을 매개로 연대의 기쁨을 회복하자는 의미다. Connecting Way는 정현기 전시 디렉터가 전시감독을 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지역전시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소리숲-양림'의 전시장으로 양림동이 활용돼 마을 가치와 매력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슬로건은 '마을이 미술관이다'.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 8개소를 비롯해 파빌리온 5개소, 양림골목비엔날레 기획전시장 10개소, 오픈스튜디오 8개소가 미술관으로 변신하며 참여 작가도 50여 팀에 이른다.

한희원 위원장은 "양림골목비엔날레는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박정용 작 '사이, 시공간의 흔적'

게스트하우스 앞, 호랑가시나무 글라스플리곤, 사잇길이다.

'Connecting Way part2. : 사이, 작가의 흔적'은 양림동 작가들 작업 공간과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이다. A권역은 갤러리 수(신선화), 한부철갤러리(한부철), 신수정 작업실(신수정)이며, B권역 갤러리는 늘(최석현)이다. C권역 갤러리는 고철(강근선, 박성호), 이이남스튜디오(이이남), 이조흠스튜디오(이조흠), 고양이숲 갤러리(최순임)가 포함돼 있다.

이다영 매니저는 "긴 시간에 걸쳐 마을이 쌓아온 이야기를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 100년간의 창작자들이 오늘날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현상으로서 마을을 조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골목비엔날레는 전시 외에도 투어, 체험, 공연,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연결'이 주제인 만큼 미술이라는 경계를 넘어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9월 한 달 간 양림동의 식당, 카페들이 참여하는 그랜드세일행사인 '양림스폰워크', 학강초 어린이들과 마을 작가들이 함께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스와인하트 스쿨'이 진행된다. 아울러 광주·전남 14개 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파트너 프로그램', 양림동주민자치회가 이끄는 소축제 '겉기 좋은 양림' 등도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4일 오후 개막식에서는 오프닝 퍼포먼스와 전시감독 투어, 축제 개막 선포, 잔치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펼쳐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신체와 기술을 연결하다, 미디어아트로 풀어내다

프랑스 여성 거장 오를랑 작품전  
오늘부터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과...'

프랑스 출신 작가 오를랑(77)은 신체 미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신체를 모티브로 끊임없이 자신의 예술 서사를 구현해왔다. 기존 관습으로 명명되는 이름을 거부하고 불어에서 여성형, 남성형도 아닌 오를랑(ORLAN)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

프랑스 여성 거장 오를랑의 작품을 미디어아트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센터장 이경호·G.MAP)은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1, 3전시실 및 외부 미디어 파사드월에서 '오를랑 하이브리드'전을 연다. 개막식은 오후 5시 30분이며 오를랑 작가의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광주비엔날레 30주년 특별기념전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신체와 기술을 연결해 풀어내는데 특징이 있다. 오를랑은 기술을 활용해 물리적 신체를 가상 공간에서 해체하고 결합하며 혼종한다.

예컨대 작가는 자신의 몸을 예술 활용의 소프트웨어로 상징한다. 변형된 가상의 신체를 매개로 사회적 목소리를 예술적 실천의 차원으로 전이시킨다.

특히 1990년대 뉴욕, 파리 등에서 9차례에 걸친 생중계 성형수술 퍼포먼스를 통해 세계에 이름을 알린 전례에서 보듯, 작가는 신체를 저항하고 변형하는 작업의 대상으로 활용한다. 새로운 신체 예술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주목할 점은 오를랑 작업이 물리적 육체에만 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신체 기술이 통해 재명명되고, 예술 활동은 다변화된 주제로 표현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인터넷 이전 프랑스에 보급된 단말기 미니텔을 활용한 작업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와 연계한 행사도 진행된다. 5일 오후 3시 30분부터 작가와의 대화가 그것. 이경호 센터장, 윤진섭 미술평론가, 조영주 여성작가가 패널로 참석해 풍성한 이야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센터에서는 연계 행사로 비평연구 프로젝트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참가자를 모집했

다. 오를랑의 작품세계와 연관된 신체성, 젠더, 포스트 휴먼 등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비평가, 연구자, 10명을 선정해 작품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전시와 행사가 동시대 사회적 예술의 새로운 시각을 담아낼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한편 이경호 센터장은 "오를랑의 작품은 기존 남성성과 여성, 서구와 비서구, 자연과 인간 등 이분법적으로 주어지던 이데올로기와 관습화된 기호들을 해체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기술과 신체를 매개로 사회적 문제를 외쳤던 울림의 소리가 30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와 연계해 의미있는 메시지로 전달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멜로의 정석 '비포 시리즈' 몰아보기

광주독립영화관 '선라이즈·선셋·미드나잇' 12·21일 특별상영전



영화 '비포 선셋'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비포 트릴로지(3부작)'가 지난날 전국 멀티플렉스 등에서 28년 만에 재개봉했다. 수년에 걸친 청춘 남녀의 연애타를 일출('비포 선라이즈'), 일몰('비포 선셋'), 한밤('비포 미드나잇')에 빛대 영화 팬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

광주독립영화관이 '비포 시리즈 특별상영전'을 오는 12월, 21일 2회에 걸쳐 진행한다. 12일 오후 3시 20분, 5시 20분, 7시를 비롯해 21일 오후 1시, 3시, 4시 40분에 각각 세 시리즈를 차례로 상영할 예정이다.

시리즈 첫선인 '비포 선라이즈'는 기자에서 우연히 만난 제시(에단 호크 분)와 셀린(줄리 델피)의 대화로 시작한다. 이들은 서로 끌림을 느끼고 비엔나 역에서 하차한 뒤 낭만적인 하룻밤을 보낸다. 6개월 뒤 재회를 약속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사되지 않는다.

9년 뒤 개봉한 '비포 선셋'은 실제 영화 속 시간도 9년이 흘렀다는 설정이다. 제시는 자신의 출판기념회차 프랑스 파리에 방문하면서 다시 셀린을 만난다. 헤가 지기 전까지 흘러버린 시간을 돌아보며 두 사람은 짧은 하루의 우연을 영원으로 만든다.

시리즈 종결작 '비포 미드나잇'은 다시 9년의 시간이 흘러 그리스 해변 카르다말리를 비춘다. 두 사람은 뜨거웠던 20대 연애 끝에 현실 속에서

논쟁하는 '현실 버전의 연인'이 되어 있다. 전작들에 비해 낭만보다 현실감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감나게 펼쳐지는 사랑의 잔향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관람객에게 오리지널, 스페셜 및 트릴로지 기념 포스터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영화영상산업진흥원 이사장은 "최초로 개봉한 지 30년 가까이 된 볼륨의 명작들을 단 하루 만에 몰아볼 수 있는 특별상영회를 마련했다"며 "영화 속 배우들의 시간 흐름을 따라가며 사랑의 속성을 탐구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관람료 1만 원.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광주문화재단 '어린이목수축제' 10월 11~13일 광주과학관

팬관, 호랑이, 거북이, 북극곰.

위 동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동물원에 가면 인기가 있는 동물들이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생명체들이다. 이들의 멸종 위기는 인간의 포획도 원인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탄소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저탄소 운동 메시지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목수가 돼 프로젝트를 펼치는 어린이목수축제(예술감독 박성완) 기획됐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오는 10월 11일~13일 국립광주과학관 별빛누리관 잔디밭에서 '2024 어린이목수축제'를 연다. 어린이 목수(초등 4학년~6학년)는 40명, 선배 목수(기 참여 중학생 대상 선착순)는 10명을 모집한다.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해온 어린이목수축제는 예술가와 목공과정을 매개로 자연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4가지 멸종위기 동물과 상징적 의미를 담아 이동 수단을 목재로 구현할 예정이다.

4개 모듬은 다음과 같다. 지구온난화로 주요 먹이인 크릴새우가 줄어들어 힘든 '팬관' (겉기 좋은 작가), 생태 파괴로 수컷이 태어나지 않아 멸종위기에 처한 '거북이' (정류장 백상옥 작가), 서식지가 사라져 생태계가 위협받는 '호랑이' (버스·순연운 작가) 해수면의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북극곰' (자동차·박기태 작가)이 그것이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광주문화재단 및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3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목수가 제작하고 싶은 작품의 스케치를 멸종위기 동물 소주제 4개 중 2개(중복허용)를 제출해야 한다.

노희용 대표 이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알리는 것은 중요한 환경교육 일환"이라며 "이번 목수축제를 통해 저탄소 이동 수단인 목수축제를 많은 이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어린이목수축제' 담당자에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드뷔시·이베르·포레·라벨... 프랑스 클래식 낭만

광주시향 '오티움 콘서트Ⅳ'  
12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인상주의, 프랑스 음악의 진수를 선보이는 콘서트 가 열린다.

광주시향교향악단이 오티움 콘서트Ⅳ 'Impressionism'를 오는 12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언이 지휘와 해설을 맡으며 플루티스트 박예림이 광주시향과 협연할 예정이다.

공연은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의 창시자라 불리는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으로 시작한다. 드뷔시 작품 중 가장 사랑받는 곡으로, 이 작품으로 인해 드뷔시는 바그너로 대표되던 후기 낭만과 음악의 아성을 깨고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펼쳤다.

이어지는 '플루트 협주곡'은 자크 이베르의 곡이다. 당시 저명한 플루티스트였던 마리셀 모이즈가 의뢰해 만들어진 작품이며 플루트의 기교, 화려한

음색이 부각됐다.

최고 난이도를 요구하는 곡인 만큼 다양한 음악적 스타일과 기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연자로 국립 아베농 오케스트라에 종신 수석 플루트 연주자로 입단한 박예림이 출연한다.

포레의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Op.80' 중 '시칠리아 무곡'도 울려 퍼진다.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지만 우아한 리듬, 단조 특유의 애상감이 깃들여 다양한 악기의 독주곡으로 사랑받았다. 첼로의 선율과 화성악적 아름다움이 돋보여 포레의 미의식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힌다.

끝으로 라벨의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가 대미를 장식한다. 라벨의 '거울' 모음곡 중 널리 연주되는 곡이며 '스페인의 어릿광대가 흠모하는 여인의 창가에서 새벽에 부르는 사랑 노래'라는 의미가 악곡에 투영돼 있다.

지휘는 서울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한 김영언이 맡는다. 전남대, 전북대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왔으며 서울대, 한예중 등에서 강의했다.



지난 '오티움 콘서트'에서 공연을 해설 중인 김영언 지휘자의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티켓링크 예매. S석 2만원, A석 1만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